

■로스쿨 인가 발표 일주일 앞
전남대·조선대, 입학 전형·운영 계획은

이달 말로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발표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심사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미 전남대와 조선대 현장 실사를 마치고 최근 실사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 로스쿨 유치에 학교의 명운을 걸고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의 로스쿨 입학 전형 및 교과 운영 계획을 미리 들여다보았다.

사회 경력·전문 자격증 등 평가 국제관계법 분야 12과목 개설

전 남 대

전남대는 로스쿨 정원을 150명으로 신청했다. 입학전형은 크게 기본전형(70%)과 다양성전형(20%), 특별전형(10%) 세로 나뉜다.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논술과 면접을 거치게 된다.

기본전형은 ▲사회봉사활동 ▲외국어 성적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등을, 다양성전형은 기본전형 항목에 사회경력을 더해 반영한다. 사회봉사활동 50시간은 의무사항이다.

면접에서는 전남대가 로스쿨 특성화의 주제로 정한 '공익·인권'에 대한 가치관, 사회적 책임무성 등을 묻는다. 외국어 성적은 최소자격기준 뿐 아니라 백분율로 환산해 일정 비율을 반영하며, 제2외국어 가산점도 있다.

다양성전형에서는 사회경력을 포함해 전문

자격증 소지 여부, 공익·인권분야 경력, 고시 합격 여부, 지역균형, 이공계 전공 등이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연간 등록금은 97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로스쿨 학생들은 필수-기본-심화-첨단과목 등 순으로 이론수업을 받고, 외국법을 비롯한 통합·법률·인접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필수과목에는 민사법(물권법, 계약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기초이론·개별범죄론), 공법(행정법·기본이론), 기업법(기업유형론) 등이 있으며 첨단과목에는 M&A법, 자본시장법, 사이버스페이스와 법 등이 마련돼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관계법 분야에 12과목 28학점과 영어·일본어·독일어 등 원어 강의 20과목이 개설된다. 공익·인권법 분야에서는 환경분쟁실무, 차별금지법, 소수자인권법, 농어민분쟁실무, 과거청산과 법, 재외한인과 인권 등을 다룬다.

조 선 대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신청한 조선대 로스쿨은 일반전형(90%)과 특별전형(10%)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학부 성적(20%)과 영어·법학적성시험(80%) 성적 기준으로 1단계에서 90명의 2~4배수를 뽑은 뒤 2단계 개별심증면접(5%)과 집단토론(10%), 사회봉사(5%), 1단계 전형점수(80%) 등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1단계에서 4배수를 뽑을 예정이며, 특성화분야 경력자, 각 전문분야 허리 및 자격증 소지자, 국제화관련분야 경력자, 사회적 취약계층배려 대상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 법학자는 전체 정원의 40% 이상, 타 대학 출신자는 정원의 50% 이상 우선 선발을 통해 우대한다.

등록금은 연간 1천800여만원이며, 학생의 30% 이상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전공분야별 개설 교과목은 ▲시민생활과 인권·기사소송, 형사증거법, 법의학 ▲공공정책과 지역: 공공정책과 법, 행정법·종합연습 ▲기업경쟁과 국제화: 상사계약법, 기업법·종합연습 ▲문화법 특성화: 엔터테인먼트계약실무, 지적재산권법 등이다. 총 131개 과목 333학점이 개설된다.

필수실무과목으로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법조윤리, 모의재판 등을, 전공필수로 협법, 계약법, 형법 등을 배우며 ▲법률인접과목: 행정학, 회계학 ▲첨단과목: 과학기술과 법, 젠더와 법, 디지털콘텐츠와 법 ▲외국어과목: 일본법, 중국법 등이 개설돼 있다. 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 등으로 실시되는 법학 강좌가 총 20과목 준비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문 밀렵꾼 무더기 철퇴

광주·전남 40명 적발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전문 밀렵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단속된 밀렵꾼 중에는 무전기와 사냥개, 염총과 질탕 수백발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기업형 밀렵 전문조직도 있었다.

영산강 유역환경과 전남경찰청,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활동단속을 한 결과 34건에 40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종인 큰기리가 5마리, 가장

오리 1마리로 포함돼 있었으며, 옛비둘기, 쇠기리기, 물닭 등 종류를 가지 않고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해남군 산이면 금호호에서 김모(55·목포시)씨 등 전문 밀렵꾼 3명이 철새무리를 향해 염총을 난사해 멸종위기종인 큰기리기, 가창오리 등을 잡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업종 3정, 실탄 120여발, 무전기 5대, 사냥개 7마리 등 각종 밀렵도구를 갖추는 등 기업형 밀렵 조직으로 활동하며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차량 3대를 이용해 '사냥조' '감시조' '운반조'로 나눠 사냥하는 밀렵꾼들의 수법도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기자 kps@kwangju.co.kr



광주노동청 "설 전 밀린 임금 지급하세요"

광주지방노동청이 설을 앞두고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설 명절을 2주 정도 앞둔 23일 현재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된 체불 임금은 총 64억원. 광주·전남지역 831개 사업장에서 1천720명의 근로자가 임

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다음달 5일까지를 '체불 임금 청산 집중기간'으로 정했다. 노동청은 임금 체불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 임금 여부를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안현주기자 ahj@

'公試族' 34%

"시험 포기 생각"

23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사 회원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시족(公試族·공무원시험 수험생)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2%가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시험 준비를 포기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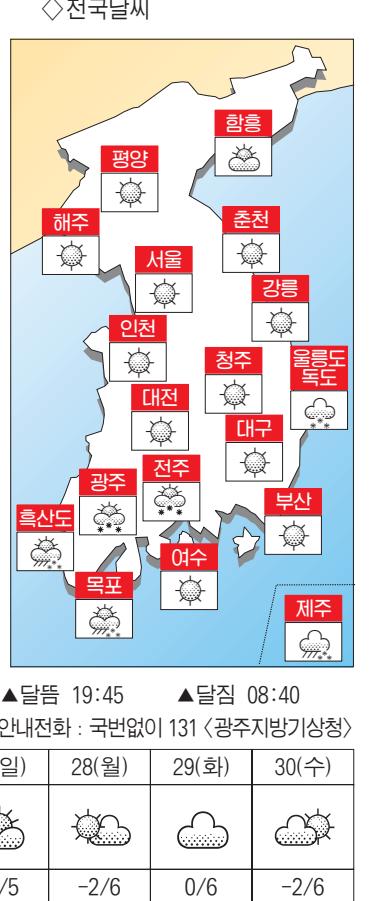
'시험을 계속 준비하겠다'는 이는 52.8%였으며, 나머지 13.0%는 '시험 준비를 계속 하되 지원 분야를 변경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는 이유로(복수응답) '공무원 취업 문이 더 좁아질 것 같아서'(72%)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아파도 참으렴"

울 겨울 들어 광주에서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겨울철 건강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3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구보건소를 찾은 어린이들이 흉역과 수두 등 각종 질환 예방 주사를 맞고 있다. /위직령기자 jwvi@kwangju.co.kr

찬바람 '쌩쌩'
찬 대륙고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눈이나 비가 오겠다.

1월 24일
(음 12월 17일)
◇전국날씨



호적과 다른 주민번호 11만명 전원 구제

행정기관과 법원 등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 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국민 11만명이 전원 구제를 통해 상반기에 관련 기록의 '불일치'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들 11만명의 기록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따른 비용을 '국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 정정 절차도 최대 1주일을 넘기지 않는 최단기간에 처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11만명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두 기록의 불일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일괄 해소, 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1만명의 호적과 주민등록상 기록의 최초 신고 단계부터 전산 입력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과 수작업으로 실사. 어느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들었지만 새집증후군 경험자의 25%가 '새집증후군 때문에 병원에 다닌 적이 있다'고 말해 새집 입주자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들이 경험한 새집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한 증상'이 64.4%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시공사 관계자의 75.1%는 실내공기질 수준에 대해 '양호하다' 혹은 '보통이다'고 평가해 입주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연합뉴스

입주자 3명 중 1명

"새집 증후군 경험"

환경부는 작년 10~12월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해 입주자 528명과 시공사 관계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입주자의 29.8%가 새집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응답은 2006년 조사 때의 35.9%보다는 6% 포인트 가량 줄어

설날 선물-안동 ■ 간고등어

전국택배 054)859-0571
054)859-0715

한국인터넷주문센터 www.godeungnang.co.kr

전국 이마트에서도 선물로 찾습니다.

한국인터넷주문센터 www.godeungnang.co.kr

전국 이마트에서도 선물로 찾습니다.

한국인터넷주문센터 www.godeungnang.co.kr

전국 이마트에서도 선물로 찾습니다.